

Our Communities Post-COVID-19

Ansuk Jeong[†]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Utah Asia Campus, Incheon, Korea

As the COVID-19 pandemic has hit every single aspect of our lives, the attention to “community” naturally has increased. By applying the lens of community psychology to the current phenomena we are experiencing, I hope we can understand how to make our communities more successful in dealing with this unprecedented situation. While the scientific data in the psychology field is not available yet, I used the database of popular press media published in South Korea from January 20, 2020 to August 08, 2020 to estimate the public needs related to our communities. The data showed our conflicting boundaries of communities, vulnerable communities, and successful communities. Suggestions are made to clinical psychologists as practitioners, as researchers, and as citizens.

Keywords: community, Post-COVID-19, community boundary, vulnerable communities, successful communities

Post-COVID-19 시대 우리의 공동체

국제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시간에 있었던 일이다.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였다. 뉴욕 맨하탄에서 학교를 다니는 교환학생의 질문, “뉴욕과 비교할 때 한국은 집단주의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서울 시내 버스에서 보니까 헛갈리던데요. 벨을 미치지 못 눌러서 내리지 못하는 승객이 안전부절하는 사이 아무도 버스기사에게 좀 더 기다려 주라고 말을 안 하더라구요. 결국 그 사람이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는 걸 봤어요. 뉴욕에서 이런 경우라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버스기사에게 소리쳐서라도 도와줬을 텐데...” 그러자 텍사스주에서 태어나 자란 한인 2세 학생이 말한다, “한국인은 자기가 생각할 때 내집단원(in-group member)이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지만 외집단원(out-group member)에게는 아예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버스에서도 자기가 아는 사람 또는 알 수도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자기네 학교 후드티를 입은 사람 정도라면 도와줬겠지만, 그냥 무작위의 누군가라면 굳이 나서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상황적으로 책임감 분산(Darley & Latane, 1968)이 얼마나

작동하는가도 학생들이 경험한 현상의 주요한 요인이 되겠지만, 사소한 것 같은 이 일화가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COVID-19가 팬데믹이 되면서 국가 간 이동이 매우 부자유스러워졌고, 국내에서도 비대면 업무가 활성화되고 있다. 즉, 항시적인 밀접접촉자란, 동거하거나 매일 만나는 동료 정도로 한정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게 “내집단”과 “외집단”을 가르는 기준은 아무래도 그 경계가 좁아질 것 같다. 그러나 동시에 COVID-19가 내 가족, 내 직장사람들만 겪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가 다 같이 시름하고 있는 문제인 이상, “집단”의 경계는 다시 넓어질 법도 하다.

이 “집단”이라는 것의 의미, 그 역할, 그 기여에 대해 심리학자들이 고민한 흔적이 “공동체”라는 단어에 들어있다. 반세기 전에 미국에서 일군의 임상심리학자들이 공동체심리학(community psychology)이라는 영역을 창설한 이후(Kloos et al., 2012), 공동체가 우리 삶에 갖는 직접적인 관련성(relevance)을 현재의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자주 실감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가 경험해온 현재를 바탕으로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에 대해 공동체심리학의 관점(정안숙, 2015)에서 해석해보고자 한다.

[†]Correspondence to Ansuk Jeong,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Utah Asia Campus, 119-3 Songdo Moonwha-ro, Yeonsu-gu, Incheon, Korea; E-mail: granble@gmail.com

Received Sep 01, 2020; Revised Oct 13, 2020; Accepted Oct 14, 2020

COVID-19가 드러내는 것들

우리나라에서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본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2020년 8월 20일 현재까지 약 7개월이 흘

렸다. 그 사이 국내 누적확진자 총 16,670명 중 309명이 사망하였고, 2,241명이 격리 중이다(질병관리본부, 2020). 이 수치 안에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가운데, 끊임없이 변화해온 삶의 방식들, 소위 뉴노멀이라고 칭해지는 새로운 기준들에 대한 적응, 그리고 우리네 삶의 기저에 있는 작동원리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

상호의존성

COVID-19가 전세계적인 유행전염병이 되면서 가장 먼저 직시하게 된 우리 일상의 단면은 바로 연결성(connectedness) 또는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사람의 감염이 비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확산되므로, 우리는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공개하고 나의 동선과 겹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누군가와 말을 섞거나 또는 같은 공간에 있음으로써 감염가능성이 높아지는 이 강력한 바이러스 탓에, 구성원 누군가에게 일어난 변화가 다른 구성원 또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매 순간 몸소 체험하고 있다. 자연과학에서 차용한 개념인 생태학적 접근(Kelly, 1986)으로 말하면, 공동체라는 것이 구성원들(resources) 간의 유기적인 연결(interdependence)에 의존하여 공동의 적응(adaptation)을 해나가는 단위라는 원리가 이제 우리의 의식수준에 머물고 있다.

상호의존성의 단면은 산업영역 곳곳에서도 관찰된다. COVID-19 초기에는 해외여행을 비롯한 국내외 이동이 급감하면서 여행 및 운송 관련 업체들이 받는 타격이 자주 보도되었다. 2020년 8월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대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을 논의하는 시점에서는, 대면모임 및 외출을 삼가는 분위기에서 음식점이나 카페까지도 이용객이 줄어든 상황이다. 특히 영세상공인의 경우 이와 같은 경제적 난관을 장기간 버텨낼 여력이 되지 않는다. 작전 크건 사업을 접는다는 것은 곧 종사자들의 실업을 의미하기도 한다. 반면에 비대면 배달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속도는 더더 배달노동자들의 고충이 자주 보도된다. COVID-19로 인해 변화되어가는 생활방식에 따라 다양한 산업영역에서 도미노처럼 COVID-19의 여파를 겪어냄으로써, 우리사회 곳곳에서 생태학적 의미의 상호의존성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공동체의 중요성

“개인이 의지할 수 있는, 항시적으로 가용하고 상호적으로 지지적인 관계”를 뜻하는 단어 공동체(community) (Sarason, 1974)는 장소적인 의미의 지역사회(local community)와 관계적인 의미의 공

동체(relational community) 모두를 아우르는 표현인데(Kloos et al., 2012), 이는 그 성격에 따라 여러 층위로 나뉠 수 있다. Bronfenbrenner (1979)는 일찍이 아동의 발달을 연구하면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맥락(systems)의 중요성을 간파하였다. 개인이 직접적인 소통을 주고받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 학교, 직장과 같은 microsystem은 개인과 가장 지근거리에 있다. 반면에 개인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지는 않지만, 구성원들의 상호의존성 때문에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exosystem도 있다. 아버지의 직장이나 부인직장의 상사와 같은 경우가 그 예이다. 나아가 이 모든 작은 공동체들에 좀 더 근본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는 법 또는 정책과 같은 macrosystem이 있다.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microsystem 구성원들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외에도, 배우자가 입원했을 때 간병휴가를 낼 수 있는 직장인지와 같은 exosystem 그리고 증상이 의심될 때 진단검사를 받으면 검사비 부담은 누구의 몫인지, 더 나아가 전염병 확산을 낮추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문화인지, 음식 나눠먹기나 개인 위생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떠한지와 같은 macrosystem까지, 우리가 호흡하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 공동체의 작동원리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의 우리 자신을 깨닫는다. 직장공동체, 가정공동체, 그야말로 우리의 일상에서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만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소소한 재미를 느끼던 우리의 활동이 원천적으로 제약받는다. 운동시설도 닫은 지 수개월이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조심스럽다. 혼자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레이닝이나 화상통화 기술에 의존한 재택근무 등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최대한 현상황에 대처하느라 노력들하지만, 편안하지 못한 주거 환경에서 공공의 서비스에 일상을 의존하는 환경이나 대면접촉을 기본으로 한 산업영역들에서는 이와 같은 대응조차도 근본적으로 어렵다. 우리 생활 면면이 결국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아프게 깨닫고 있다.

우리의 취약성

임상심리학에서 취약성(vulnerability)은 주로 개인의 정신병리에 대한 취약성을 말한다. 유전적 특성, 성격 특질, 또는 스트레스사건 경험 등이 개인을 더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잘 잊어버리게 한다. 또는 사회환경적인 취약성 모델도 가동된다.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 겪는 겹겹의 자원부족이 아동을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성취에 있어 취약하게 한다(Garmezy & Masten, 1994).

이와 같은 취약성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

니다. 공동체 구성원 누군가가 감염에 취약하다는 것은, 상호의존된 다른 구성원들을 순차적으로 취약하게 만들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감수해야 할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7개월 동안 우리사회 곳곳에서 겪어온 이러한 상호의존성, 공동체, 취약성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로써 COVID-19로 크게 변화되어가는 우리사회에서 임상심리학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기사로 본 우리의 공동체

조사 방법

아직 COVID-19와 관련하여 학술적인 데이터가 모집되어 논문이 출판된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하고, 그나마 문제점 진단 내지는 논평 정도의 글들이 학술회의들에서 시도된 바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생명윤리학과장협회(McGuire et al., 2020)의 특별위원회 노력(American Journal of Bioethics의 특집호 발간)이나 국내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진아 & 이지혜, 2020)의 발빠른 노력(보건복지 Issue and Focus 특집호 발간)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사회 대중의 관심, 또는 우리사회의 수요(needs)를 파악해보기 위해, 기간 출판된 비학술 언론 기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다.

한국언론재단의 데이터베이스 빅카인즈(www.kinds.or.kr)를 이용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2020년 8월 8일(본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중인 2020년 8월 수도권 중심의 전국 대유행 시기 직전)까지 전국의 일간지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술한 “community”의 다층적 의미를 고려하여, 제목에 (1) “코로나” 및 “지역사회”가 들어간 기사들; (2) “코로나” 및 “공동체”가 들어간 기사들; (3) “코로나” 및 “취약”이 들어간 기사들; 그리고 (4) “코로나” 및 “이주,” “다문화,” “성소수자,” “장애”가 들어간 기사들을 정리해보았다.

우리 공동체의 다양한 양상

지역사회 공동체

제목에 “코로나”와 “지역사회”가 동시에 들어간 기사들은 총 139건으로 검색되었다. 그 중 100건(71.9%)이 “지역사회 감염” 또는 “지역사회 확산”과 같이 감염이 전파되는 장소적인 공동체(local community)를 의미하고 있다. 나머지 39건(28.1%)은 “지역사회 강타,” “지역사회 돌보기,” “지역사회 한마음”과 같이 장소적인 공동체 테두리 내에서 상대적으로 관계적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경우들이다. 따라서 이 기사들의 연관어 분석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특정 지역자치단체나 장소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였고, 이 이름들은 “확진자” 수의 증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패턴이었다(Figure 1).

관계적 공동체

제목에 “코로나”와 “공동체”가 동시에 들어간 기사들은 34건으로 검색되었다. “지역사회”의 경우와는 매우 다르게, “공동체 의식,” “공동체 연대,” “공동체가 함께,” “운명/국민/지구촌/교육 공동체,” 또는 “공동체 위해”나 “공동체 파괴” 등의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즉, 모두 관계적인 공동체(relational community)를 강조하는 경우들이다. 이와 같은 기사들의 연관어들을 분석해보면, 지방자치단체명보다는 아이들, 마을교육자치회, 사회복지사, 사회취약계층 등과 같이 우리 가까이에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구성원들을 포함하는 경향을 보였다(Figure 2).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 및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한 노력들이 사례로 제시되었다. 어느 대기업이 해외에 “공동체성”을 강조하며 코로나 지원기금을 기부한 기사를 포함하여 국내의 크고 작은 기부에 관한 여러 기사들 외에도, 지역 상인들이 솔선수범해서 릴레이 방역을 실시하거나 예술가들이 다양한 영역의 공연을 기부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나선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COVID-19에 대한 대응 및 극복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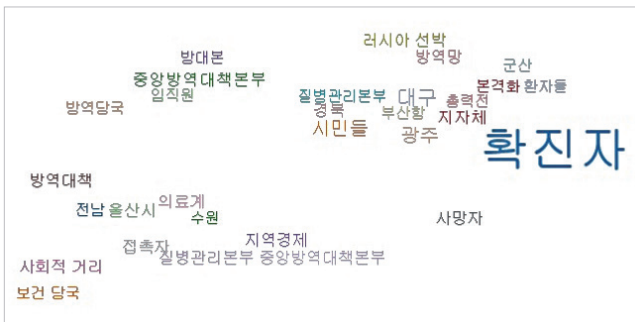


Figure 1. “코로나” 및 “지역사회”가 포함된 제목의 기사들 연관어 분석.



Figure 2. “코로나” 및 “공동체”가 포함된 제목의 기사들 연관어 분석.

참여한 결과로, 자발적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의 모습(Wandersman, 1984)이 우리사회 곳곳에서 관찰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취약한 공동체

조사 기간 중, 2020년 2월 6일에 “취약계층”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총 13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는데, 노인의 취약성, 아동의 취약성, 그리고 환자의 취약성과 같이 COVID-19 감염에 취약한 개인의 특성에 대한 보도로 시작되었다. 더불어 당뇨, 비만 그리고 여러 기저질환을 비롯해서 임신상태, 흡연여부, 수면습관이 우리를 취약하게 하기도 하며, 나아가 우리의 나눠먹는 방식의 식문화 및 밀집/밀폐/밀접 환경 등이 전염병 감염에 우리를 취약하게 만든다는 보도들이었다. 특히 특정 산업영역으로서의 돌봄 노동 종사자의 감염 취약성 또한 자주 보도되었는데, 이는 우리사회에서 종종 간과되고 있는 노동인권 및 환자인권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 후로는 자영업자의 취약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약성 보도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COVID-19로 인해 촉진된 사회변화의 결과를 개인이 짊어지게 했을 때의 취약성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들의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우리의 공동체를 둘러볼 때,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 문제를 깊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삶이 그가 속한 사회환경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우리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는 나와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삶의 방식들에 대한 배려 말이다.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이라면 5,200만 개의 다양한 삶의 맥락(the diversity of contexts)이 있을 것(Trickett, 1996)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이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는 배타적인 태도 앞에, 우리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새 사회적 소수자가 되어버렸다. 이주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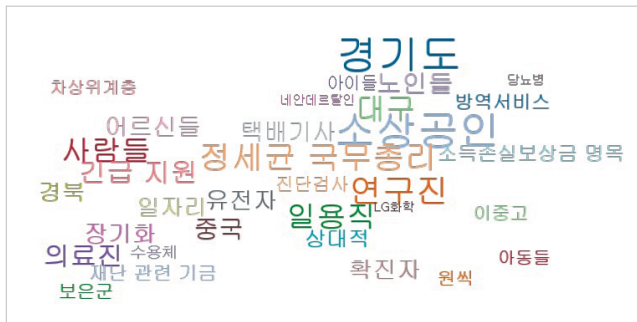


Figure 3. “코로나” 및 “취약”이 포함된 제목의 기사들 연관어 분석.

다문화가정, 성소수자, 장애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정안숙, 2015).

이러한 현실에도, “취약”을 핵심어로 한 기사검색에서 도출된 취약계층은 노인이나 생계급여성급자 등, 연령 및 사회경제적지위에 따른 소수자 정도만이 포함되고 있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시행한 검색에서는 제목에 포함된 핵심어를 “이주”, “다문화”, “성소수자”, “장애” 및 “코로나”로 하였다. 그 결과 69개의 기사가 도출되었는데, 그 중에서 COVID-19로 인한 심리적인 장애, COVID-19로 인한 경제발전 장애 등과 같은 기사들을 제외하면, 총 56개의 기사가 포함되었다(Figure 4).

“이주노동자” 관련 기사(11건)의 경우,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작업단위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노동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더불어 “이주노동자”가 대유행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기사도 발견되었다. “다문화” 관련 기사(12건)의 경우,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정 수요를 고려한 다국어서비스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이 재능기부로 다국어로의 통번역을 지원하는 내용도 발견된다. “성소수자” 관련 기사(16건)는 2020년 5월 10일부터 19일에 집중되어 있다. 즉, 이태원 클럽 관련 COVID-19 확산 시기에 “혐오”, “낙인”, “차별” 등의 단어들과 함께 등장한 것이 “성소수자”였다. 이 중 해외 언론의 보도를 재보도한 경우가 4건이나 되었는데, 우리사회에서 성소수자 차별이 우려된다는 내용이었다. “장애” 관련 기사(17건)는 대부분이 “장애학생”이나 “장애아동”에 관한 것이었다. 청각장애 학생들의 경우 특히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입모양을 관찰할 수 없어 학습이 어려워지는 것을 비롯해, 강의를 대부분 온라인이 되면서 더 불편해진 장애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보도들이었다.

COVID-19가 보여준 취약한 공동체는 국제사회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미국의 경우 사회경제적지위가 인종다양성과 매우 밀접하게 얽히고설킨 탓에, 흑인 또는 히스패닉 인구라는 사실 만으



Figure 4. “코로나” 및 “이주”/“다문화”/“성소수자”/“장애”가 포함된 제목의 기사들 연관어 분석.

로도 밀집 주거나 열악한 보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Williams & Collins, 2001). 미국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 발표한 COVID-19로 인한 사망자 자료를 2020년 6월 6일 현재로 분석한 바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취약해지는 COVID-19에 대해, 흑인은 백인에 비해 10세 가량의 연령차 취약성을 보였다(Ford, Reber, & Reeves, 2020). 말하자면 백인 50대 환자와 흑인 40대 환자의 치사율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특히 45-54세 연령그룹에서는 백인에 비해 흑인 또는 히스패닉의 치사율이 6배에 달하기도 하였다. 미국 45-54세 인구의 62%가 백인인데, COVID-19로 인한 사망자는 백인이 1,013명, 흑인이 1,448명 그리고 히스패닉이 1,698명인 불균형(disproportionate) 분포를 보였다(Ford, et al., 2020). 물론 미국 내 지역적으로 COVID-19 감염에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직업 또는 거주환경상의 밀집성을 비롯해 오랜 기간 누적되어온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도 유사한 현상을 보인다. 기술관료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이다보니 “이주노동자” 그룹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한다. 최근의 한 분석에 따르면, 싱가포르 방역당국의 2020년 5월 18일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COVID-19 감염자 28,343명 중 26,132명(98%)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였다(Koh, Lim, & Tan, 2020). 어떤 종류의 사회경제학적 불공평지수보다 눈에 들어오는, 받아들이기 마음 아픈 결과인 셈이다. 이는 빈민들의 밀집거주가 두드러지는 인도나 중국 등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공동체의 테두리와 취약성

COVID-19의 양상이 변화해도 그 사이 변화하지 않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흐름이 있다. 우리사회 깊숙히 자리한 편견 또는 낙인(stigma)을 보여주는 공동체들이 혐오의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자리바꿈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COVID-19 국내 첫 감염이 있었던 2020년 1월 20일 이후로, 확진자 수 및 감염의 확산 패턴에 있어 몇 차례의 변곡점을 꼽을 수 있다. 그 중 처음은, 2월 17일의 “31명 확진자”(질병관리본부, 2020)로, 대구경북지역을 근거로 한 어느 종교집단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었다. 종교 자체를 불문하고라도, 모임의 방식과 규모를 고려하면 공중보건적 의미에서 COVID-19 감염에 취약한 집단이었을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하필 그 종교가 주류 개신교단에서 이단으로 분류하는 종교이다보니, 해당 종교에 대한 거친 혐오표현이 언론과 사

회관계망을 타고 COVID-19보다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 후 5월 8일(질병관리본부, 2020) 이태원 클럽 발 확산세라는 또다른 변곡점에 이르면 이 혐오의 대상이 성소수자로 옮겨진다. 젊은 성소수자들이 주로 모이는 공간에 대해, 사고방식에 대해, 갑자기 국민대다수가 전문가가 되는 것 같았다. COVID-19를 다시 확산시킨 주범으로 불특정 또는 전체 성소수자들에 대한 비난이 붓물을 이루기 시작했다. 이는 이미 지난 2월 변곡점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보여온 혐오와 배타성에 대한 기사감이 들게 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8월에는 또다른 변곡점을 경험하고 있다. 8월 8일과 15일에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종교인들의 집회가 그것이다. 차별금지법 반대 및 헌정권에 대한 비판 동기가 전세계적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동기보다 앞서,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확산의 추세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되 전국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연령 및 정치종교적 성향이 다같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집회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진 지도자들은 대중의 몰매를 맞고 있고, 참가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방역혜방꾼”이 되어 우리사회 공공의 적이 되었다. 어쩔 수 없는 기사감이다. 우리가 혐오를 표현하는 대상이 바뀌고 있을 뿐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 변곡점에서마다 우리는 내가 속한 내집단 공동체와 내가 속하지 않은 외집단 공동체를 빠르게 구분해냈고, 내집단 공동체에 위해가 될 법한 누군가의 행동은 가치없이 혐오하고 비난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공동체의 연대를 중시할수록 자신이 속한 관계적인 공동체(relational community)와 구분되는 외집단에 대해 우리가 편리하게 취한 관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종교적으로, 성적 정체성이나 취향 면에서, 또는 나이나 정치성향에 따라서,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을 너무나 분명하게 만들어버리는 공중보건의 위기였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표현으로 거의 무의식적으로 테두리 지워 외집단으로 몰아낸 취약한 공동체는 어쩌면 이와 같은 경제 지음이 반복되면서 사회적 소수자성을 띄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바라는 성공적인 공동체

관계적인 공동체성이 강조된 기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은 공동체의 유대 노력이다. 즉,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서로 보듬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 그와 같은 노력이 효과적인 결실을 하는 공동체의 모습들이었다. 시민들의 정치참여, 풀뿌리 민주주의, 특히 소외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발전을 위한 노력(community development) 등의 사례에서도 역사적으로 검

증되어 왔듯이(Florin & Wandersman, 1990; Wandersman, 2009), 이는 성공적인 공동체의 전형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특히 이와 같은 시민참여에서 주목할 부분은, 당장의 위기상황을 협력으로 헤쳐나가려는 움직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게 되어(empowered citizens) 공동체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부분이다. 기사들에서도 자주 표현되는 “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에는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이 결정적이다(McMillan & Chavis, 1986).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내게 필요한 무언가가 충족이 되어야 구성원들의 소속에 지속성이 따를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의 결정에 구성원들이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bottom-up influence) 또는 항상 의사결정은 소수의 대표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지(top-down influence)에 따라, 구성원들의 소속감이 달라질 수도 있다. 공동체 소속은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매우 자유롭게 변동이 가능해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위기 상황을 공동체 발전의 기회로 전환해본 경험, 이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집단효능감(collective efficacy) 경험이, 추후 지속적인 시민참여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2020년 8월 현재 수도권 중심의 전국적 대확산 상황에서 시민들이 발빠르게 보여주고 있는 자발적 거리두기도 좋은 예이다. 방역당국에서 거리두기 2단계 또는 3단계를 시행하기 전에, 공동체를 위한 위험을 감지하고 시민들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2020년 3월에 경험했던 집단효능감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다시, 위에서 언급한 변곡점에서 우리가 간과한 현상을 들여다보자. 대구경북지역은 사실상 봉쇄되다시피 했었는데, 지역내 의료기관, 의료진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조를 필두로 해서 온 시도민들이 자발적으로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어느 전문가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나라에서 COVID-19의 초기확산이 하필 대구 지역이었던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의료 기반시설 및 시도민들의 협력과 연대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동체였다. 대구경북 공동체 뿐 아니라 국가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구성원들의 각고의 노력 덕분에 더 큰 위기상황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태원 변곡점에서는, 확산의 거점이 된 장소들의 특성상, 대부분의 이용객들을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 자발적으로 검사받고 자가격리하는 것에 대해 해당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었기에 더 큰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당시 성소수자라는 특성이 아우팅(개인의 성적취향 또는 정체성이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황으로 인해 밝혀지는 것)되는데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진단 검사 시 개인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도 적용되었다. 반대로 8월의 광화문집회 변곡점은 정치적인 이유와 강하게 맞물려 있어

방역당국의 공중보건을 위한 노력에 협조가 더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위기도 우리사회의 공동체적 가치, 연대를 통한 위기 극복의 경험을 떠올리며 각 개인이 설정하는 “공동체”의 테두리를 확장함으로써 다시 극복이 가능할지 두고볼 수 밖에 없다.

결국, 더 큰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치열한 노력이 끊임없이 존재했고, 그 덕분에 우리의 일상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덜 손상된 편이었다. 결국 내가 연대해야 할 대상과 혐오할 수 있는 대상을 경계 짓는 “공동체”의 테두리를 지혜롭게 확장했을 때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COVID-19로 새삼 확인하게 된 상호 의존성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하자. 내가 직접적으로 이해 관계를 공유한다고 믿어온 *microsystem*에만 머물지 말고, 나의 작은 위생습관을 비롯해 혐오감정까지도 그 영향을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큰 단위의 *exosystem* 및 *macrosystem*까지 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8월의 광화문집회 변곡점에서 두드러지는 방역 비협조 현상은 결국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의 가치를 팬데믹 방역보다 우선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내집단 공동체의 경계를 얼마나 확장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가치를 위해서 그 경계를 확장할 의사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좁은 경계의 내집단을 고수하는 구성원들에게 더 큰 공동체의 어떤 노력이 설득력이 있을 것인지. 이와 같은 질문들이 공동체의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에게 중대한 고민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나의 공동체 안에는 무수한 취약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취약한 공동체일수록 여러 특성이 교차(*intersectionality*)한다. 다양한 특성들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장애가 있으면 장애가 없는 상태에 비해 교육의 기회가 적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성소수자이면 직업 또는 사회적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여성, 노령, 또는 인종적 소수자성이 더해질 수도 있다. 취약한 공동체를 대할 때, 그것이 마치 남의 일인 양, 그것이 마치 공공의 적인 양, 쉽게 구분지음으로써 심리적인 안전감을 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심리적인 안전감은 COVID-19라는 강력한 바이러스 앞에서 그 생명이 너무 짧다. 차라리 우리 안에서 보듬고 보호하고 더 배려할 때(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를 적용한 예), 결국 나를 위한 결과가 도출되었던 경험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한 사회의 사회적 안전망은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장치의 수준으로 드러난다고 했던가? 취약한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노력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혐오의 뉴스가 빠르게 전달되는 동안, 공동체 내에서 자발적으로 서로를 돌보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자. 미국에서 록다운 기간 또는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에 독

거노인 및 이동이 특히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지역 내 자원 봉사자들이 생필품이나 식사를 배달하기도 하였는데(Contrera & Shapira, 2020), 이는 기존의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는 물론이고, 일반 식당들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모집된 지역내 자원봉사자들로 꾸려졌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취약하잖아요,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다해도요. (COVID-19로) 무력하게 앉아있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들 하면서 서로 돌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라는 한 자원봉사자(미국)의 표현에 정답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가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COVID-19의 확산을 초기 단계부터 잘 통제할 때에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고강도 작업량과 일선에서의 위험을 감수한 의료진 및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의 노고가 있다. 급격히 늘어난 배달수요를 감당하느라 과로하고 있는 배달노동자들이 있고, 급감한 수요에 가게 월세를 못 낼지라도 거리두기에 협조하는 소상공인들이 있다. 사소할 수 없는 일상의 크고 작은 계획들을 조정해서 방역에 협조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 알고보면 우리들의 “공동체” 경계가 이미 “글로벌 시민(global citizenship)”의 역량 수준으로 넓어져 있는 것도 같다. 그 사이 우리 공동체가 작은 성공들(small wins)을 통해 경험한 집단효능감으로 더 연대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공동체 의식의 본질일 것이다.

이 가운데 놓칠 수 없는 인권 보호 측면 또한 주지해야 한다.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 공유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사생활 정보가 외 집단 공동체를 힐난하는 데에 쉽게 사용되었던 것을 기억하자. 이제는 우리의 일상적인 공간들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여유가 생겼다.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연결성이 좋은 장소에서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공중보건을 위한 방역, 두 가치 사이의 정책적 결정은 치열한 토론과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팬데믹 상황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2020년 8월 현재, 우리는 지속가능한 방역, 지속가능한 인권보호,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성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제 언

임상가로서의 임상심리학자

일상의 면면이 조정되고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특히 임상가들에게 요구되는 유연성은 개인으로서의 내담자를 너머 내담자가 속한 공동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동체의 취약성을 고려하면, 내담자의 연령, 성별, 성적 취향 및 성적체성, 직업, 직업의 변화, 인종, 문화적 배경, 장애,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지지의 정도 등이 자원접근도(access to resources)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학교들에서 수업 대부분이 온라인

화된 후 학습준비도 또는 가정내 가용자원의 격차에 따른 학업성취도 양극화 현상이 관찰되었다(김서영, 2020). 이는 비대면으로 내담자를 만나기도 하는 임상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공간적으로 공유점이 있는 대면 방식의 상담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소통을 전화 또는 화상회의 방식의 상담이 그대로 답을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내담자의 삶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대면 서비스에서 잃어버리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팬데믹 상황이 강요하고 있는 변화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도 있겠다. 비대면 서비스가 가져다준 일정 정도의 편의를 이제 우리 모두가 알게 된 시점에서, 임상가들도 자발적인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정신을 발휘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에 자선이 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제공하는 “심리지원” 서비스에 자격이 되는 한 자원봉사자로서 기여할 수도 있겠다. 나아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인 단위의 서비스뿐 아니라, 심리지원 대응 매뉴얼 제작이나 자문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공동체 돌보기에 환원할 수도 있겠다. 더불어 우리사회의 소통방식이 다양해지는 만큼 임상가들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다. 코로나블루로 인해 잠재적인 내담자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1인 임상가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할 바깥에도 여러 층위에서 다양해졌다는 의미에서, 이번 팬데믹 위기는 임상심리학에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연구가로서의 임상심리학자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가 다층적인 만큼, 연구에서도 좀 더 다층적인 수준의 분석(multiple levels of analysis)을 응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경제수준을 비롯한 전반적인 삶의 질 지표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던 두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하자. COVID-19 상황에서 A지역민들은 B지역민들에 비해 유난히 심리사회적 부적응 경험이 많이 보고된다면, 이 차이에 기여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 타 조건들을 통제하고 지자체별로 고유했던 정책의 효과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으로 검증해볼 수도 있겠고, 또는 전반적인 조직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선형분석(hierarchical linear modeling)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우리네 삶의 맥락의 다양성을 그 층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연구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연구의 전과정을 공동체에 기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민참여 정신의 응용이기도 하고, 협력적 관계(collaboration)의 구축이자 실현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연구문제를 생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공동체의 이해당사자(stakeholders)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공동체의 수요(needs)를 파악하고, 자료수집에도 공동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고, 연구의 결과 또한 공동체와 공유하는 것이다. 즉, Post-COVID-19 시대에는 확진자들 또는 사망자 유가족들이 경험했던 불안, 차별, 불편, 그리고 고통의 내용과 뉘앙스를 파악하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발생가능한 공중보건상 격리되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지원 방식 연구가 뒤따를 수 있다. 더불어 이와 같이 생태학적으로(Trickett, 1996)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질적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s)을 응용하게 될 수도 있겠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현상이나 인구에 대해 공동체적으로 접근하게 될 때에는 그 현상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lived experience)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근거기반의 접근(empirical grounding)으로 연구할수록 우리 사회에서 잊혀진(marginalized) 목소리들, 취약한 공동체들을 대변(advocate)하게 되는 효과(unintended consequences)가 있을 수도 있다. 결국 이렇게 시민참여로 되돌아오게 된다.

시민으로서의 임상심리학자

COVID-19로 심리건강이 화두가 되고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이 때에 임상가로서 또는 연구가로서는 물론이고, 시민으로서의 우리네 삶 속에서도 공동체를 위한 가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COVID-19 덕분에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며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질문한다. 우리에게 본질적인 공동체의 경계는 어디까지이고, 비본질적인 공동체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는 어디까지이고, 공공선을 위하여 협조할 수 있는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는 어디까지인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 타인을 위한 위생적 배려를 하지 않는 사람, 동선을 거짓진술하고 방역을 훼방하는 사람을 내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보는 순간, 혐오의 대상이자 공공의 적이 될 뿐이다. 기저질환자인 노모를 위험에 빠트리는 적이고, 학교에서 더 많이 배워야 할 자녀들을 집에 묶어두고 무기력하고 수동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적이다. 이미 수개월 미뤄온 결혼식을 또 미루게 하는 적이고, 근근이 버텨온 영업장을 닫게 하는 적이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 이런 잠재적 공공의 적을 최소화할 것인가.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역량이란 무엇인가. 하나의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공동체의 경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바로 성숙의 지표 아닌가 한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병리로 고통받는 구성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서 돌보았다. 산업화되면서 이 역할이 임상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 사회복지사 등으로 아웃

소싱되었다가, 이제는 다시 탈시설화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아이를 키우는 데에 마을 전체가 필요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보듬는 데에 우리 공동체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COVID-19 시대에 고통이 보편화되는 만큼 돌봄 또한 우리 모두의 몫이 되어가고 있다. 다시 한번 공동체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에 성숙한 시민으로서, 주어진 시민으로서, 우리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Author contributions statement

AJ, assistant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Utah Asia Campus, designed the study, retrieved the data from a public source, analyzed the data, and prepared the manuscript.

References

- 김서영. (2020). 갑자기 닥친 원격수업: 교육양극화 '위기'와 교육 개혁 '기회'.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7022113005.
- 전진아 & 이지혜.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특집호. 보건복지 Issue & Focus, 375.
- 정안숙. (2015). 현대한국사회에서 공동체심리학의 역할: 공동체심리학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 667-683.
- 질병관리본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8월 21일, 0시 기준). Retrieved from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 질병관리본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19일, 0시 기준). Retrieved from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 질병관리본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8일, 0시 기준). Retrieved from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 Bronfenbrenner, Y.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ntrera, J., & Shapira, I. (2020,03.17). Volunteering and coronavirus: When helping people could mean putting them at risk. Washington Post. Retrieved from https://www.washingtonpost.com/local/volunteering-and-coronavirus-when-helping-people-could-mean-putting-them-at-risk/2020/03/17/37755f04-6864-11ea-b313-df458622c2cc_story.html.
- Darley, J. M., & Latane, B. (1968). Bystander intervention in emergencies: Diffusion of responsi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 (4, Pt.1), 377-383.
- Florin, P., & Wandersman, A. (1990). An introduction to citizen participation, voluntary organizations, and community development: Insights for empowerment through research. *American*

-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 41-54.
- Ford, T., Reber, S., & Reeves, R.V. (2020). Race gaps in COVID-19 deaths are even bigger than they appear. Retrieved from Brookings Institution, <https://www.brookings.edu/blog/up-front/2020/06/16/race-gaps-in-covid-19-deaths-are-even-bigger-than-they-appear/>.
- Garnezy, N., & Masten, A. (1994). Chronic adversities. In Rutter, M., Taylor, E., and Hersov, L., (Ed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Modern Approaches* (pp. 191-208). London: Blackwell.
- Kelly, J. G. (1986). Content and process: An ecological view of the interdependence of practice and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581-589.
- Kloos, B., Hill, J., Thomas, E., Wandersman, A., Elias, M. J., & Dalton, J. H. (2012). *Community Psychology: Linking Individuals and Communities*. Washington, DC: Wadsworth.
- Koh, V., Lim, A., & Tan, J. J. (2020). The Singaporean State and Community Care in the Time of Corona. *City & Society*, 32, DOI: 10.1111/CISO.12297
- McGuire, A. L., Aulisio, M. P., Davis, F. D., Thomas, C. E., Harter, D., Jagsi, R., . . . & The COVID-19 Task Force of the Association of Bioethics Program Directors (ABPD). (2020). Ethical challenges arising in the COVID-19 pandemic: An overview from the Association of Bioethics Program Directors (ABPD) task force. *The American Journal of Bioethics*, 20, 15-27.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 Sarason, S. B. (1974). The American worldview. In S. B. Sarason (Ed.), *Psychoanalysis, General Custer, and the Verdicts of History, and Other Essays on Psychology in the Social Scene* (pp. 100-118). San Francisco, CA: Josey-Bass.
- Trickett, E. J. (1996). A future for Community Psychology: The contexts of diversity and the diversity of contex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 209-234.
- Wandersman, A. (1984). Citizen participation. In K. Heller, R. Price, S. Reinharz, S. Riger, & A. Wandersman (Eds.), *Psychology and Community Change* (2nd Ed., pp. 337-379). Homewood, IL: Dorsey.
- Wandersman, A. (2009). Four keys to success (theory,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resource/system support): High hopes and challenges in participa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3, 3-21.
- Williams, D. R., & Collins, C. (2001). Racial residential segregation: A fundamental cause of racial disparities in health. *Public Health Reports*, 116, 404-416.

국문초록

Post-COVID-19 시대 우리의 공동체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정안숙

공동체심리학이 태동한 1965년 이후 COVID-19가 팬데믹이 된 2020년 8월 현재까지 우리사회 곳곳에서 사용 중인 “공동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세계적으로 확진자 및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2020년 8월 20일 현재, 심리학 연구에 유용한 자료는 아직 모아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COVID-19 국내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본 논문을 작성하기 직전인 2020년 8월 8일까지 국내에서 기사화된 코로나 관련 내용을 통해 우리사회의 모습과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개인이 자신의 “공동체”라고 규정하는 테두리를 확장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취약한 공동체를 보듬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공동체를 경험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나아가 임상가로서, 연구가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임상심리학자들이 염두에 둘 내용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요어: 공동체, Post-COVID-19, 공동체 테두리, 취약한 공동체, 성공적인 공동체